

성 오매뜨르 베드로 신부(1837-1866)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92
(시편 144,15)

프랑스 앙굴렘 교구 출신인 오 신부는 1862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1863년 6월에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다. 경기도 수원 근처에 있는 샘골에서 한국말을 익혔으며, 충청도 홍주 거더리에서 전교하였다. 1866년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 해 3월에 안 주교가 체포되자 피신하려고 배를 탔으나, 거센 역풍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더리로 돌아와 체포되었다. 오 신부는 안 주교, 민 신부 등과 함께 서울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3월 30일 갈매못에서 안 주교 다음으로 두 번째 칼날을 맞아 29세의 젊은 나이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소장처 _ 파리외방전교회 본원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피어라, 신앙의 꽃)」 성인화 · 약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제 1 독 시** 민수 11,25-29
- 회 답 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제 2 독 시** 야고 5,1-6
- 복 음 환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복 음** 마르 9,38-43,45,47-48
-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40).



황광현
요셉 신부
이원 본당

1984년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관한 작품인데, 실제 내용은 안토니오 살리에르의 인간적 갈등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살리에르는 위대한 음악가를 꿈꾸며 자신의 재능이 최고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모차르트를 대면하고 그의 천부적 재능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살리에르는 좌절하고 시기합니다. 모차르트같이 철없고 방만한 사람에게는 천재적 재능을 주고, 진정 하느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해안을 가진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내몰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자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 38~40)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행위를 시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기(猜忌)는 온통 신경과 시선을 경쟁자에게 두어 자신을 성장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시기를 받게 되면 자신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한 적이 없는 데 함정에 빠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웃가게 하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을 시

기하지 않으며, 은행원이 동네 마트가 잘된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가 작용하면 그 불꽃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시기의 해악이 큰 것입니다.

시기심을 없애려면 먼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는 한편으로 자신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생길 때 진정한 자신의 바람을 성취시키는 적절한 방법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지만 나와 비슷하거나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영역을 넓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체험하면서 시야를 넓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의 것도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 것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시기는 대부분 험담으로 이어지고 험담은 뒷담화로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드리는 감사송에서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길”이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우리 자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을 생활한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마르 9,41).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 렘브란트 작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담화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당신 백성 안에서 걸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역사를 통한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의미에서 당신 백성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생의 신비가 널리 퍼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까닭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형제자매와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이주민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이며 헐벗고 병들며 감옥에 갇혀, 만남과 도움을 청하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 모임 참가자들과 함께한 미사 강론, 사크로 파노, 2019.2.15.). 마태오 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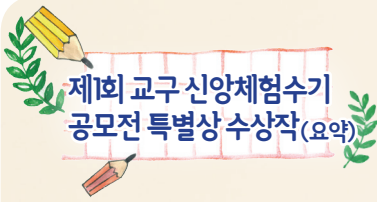
태 25,40).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주님을 만나 뵙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뵈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3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교황 담화, 2019.11.17.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하여 봉헌된 오늘, 존엄한 삶의 여건을 찾아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여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느님의 충실한 백성의 여정에서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제1회기 「종합 보고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시노드 총회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난민을 맡겨 드립니다.

오송 본당 사도들의 모후 뿌레시디움 2000차 주회

오송 본당(주임_ 이명재 라파엘 신부) ‘하늘의 여왕’ 꾸리아 직속 ‘사도들의 모후’ 뿌레시디움은 9월 11일(수) 2000차 주회를 실시하였다. 사도들의 모후 뿌레시디움은 1982년 1월 19일에 승인받았으며, 현재 열 두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아는 마리아의 군단을 뜻한다. 이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 단체로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마리아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그분의 강력한 지휘 아래 군단(Legio)을 조직하여, 세상 죄악의 권세에 대항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신심 단체이다.





청주주보는 9월 22일(주일)부터 10월 13일(주일)까지 제1회 교구 신앙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요약문을 소개합니다. 교구 홈페이지(www.cdcj.or.kr)에서 수상작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공모전 수상작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이양철 펠릭스 / 덕암 본당

2006년 봄날, 내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생기를 잃어가고 특하면 감기 몸살기가 있고, 몇 개월 사이 몸무게는 7Kg나 줄었다. 주일미사를 마치고 임원들과 식사하는데 간호사인 헬레나 자매가 눈에 황달이 있다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도 병원에는 가지 않고 수요일 가톨릭회관에 주교님께서 안배하여 허락해주신 운전기사 사도회 사무실 지붕 교체공사를 돕기 위해 지붕에 앉아 있는데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못해 평소 다니던 내과 병원을 찾아가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초음파 검사기를 등에 대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대학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스무 살도 안 된 어느 날 외출했다 집을 들어서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대뜸 “에이 이 총각은 사십도 못 넘기고 죽을 팔자네.” 그분은 형수가 좋아하던 점쟁이였다. 신부님 말씀 중에 사제의 강론 말씀은 성당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아니 듣자마자 까맣게 잊지만 점쟁이 말은 평생을 두고도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나 역시 점쟁이가 한 이 말은 지금껏 기억하며 세상을 조심조심 살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른 덕분에 13년을 더 살았으니 이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은총이지 더 바랄 게 뭐 있으랴.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어떻게 결과 나왔느냐?”고 묻는다. “여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펠릭스

의 삶은 여기까지인가 봐! 애들하고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갈 준비해.” 너무 직설적인 말에 넋을 잃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울음을 터트리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아내와 애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하느님 일 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세례를 받은 성당이 신축 중인 성당이었는데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성당도 신축 중인 성당이였다. 성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면 일하다가도 달려가서 모자라는 물품도 조달해 주고 청소도 하고, 성당에 할 일을 두고 운전운을 하면 마음이 성당에 있으니까 차라리 성당에 가서 봉사하고, 빠진 시간만큼 일을 더하는 게 마음의 평화였다. 이렇게 성당 일을 하다 보니 열 한개나 되는 단체에 관련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본당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열 한개가 될까? 레지오 단장, 꾸리아 단장, 꾸리아 단장이니까 교구 레지아에 참석해야 하고, 평협임원, 울뜨레야 간사, 성가대, 남성구역반장, 교도소후원회, 운전기사 사도회 총무, 성당 테니스회 총무, 평협 전례부장이니까 전례회의를 매월 해야 하고.... 한 달에 열흘 쉬는 날인데 열하루를 써야 하니 자연히 가정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을 했을 때였다. 오죽하면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던 날도 병원에만 태워다주고 기사사도회 부부

동반 월례회의에 참석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아 주고 이해해 준 아내 덕분이다. 이런 아내에게 애들 데리고 독하게 마음먹고 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으니 그 심정은 주님만 알고 계시리라...

입원을 위해 성모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다. 죽음만 생각하고 까맣게 잊었던 예수님! 기도해야지! 주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수천 번을 미친 듯이 애원하며 반복해서 밤새도록 이 기도만 드렸다. 새벽녘쯤이었을까? 마귀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가... 아래위 검은 옷을 입은 마귀는 얼굴은 보여 주지 않고 왼쪽 문을 열고 쭉쭉 찡긍하고 나가고 또 한 마리의 마귀는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앉아 있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성질을 버럭 내며 오른쪽 문을 열고 쭉쭉 찡긍하고 나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푹푹히 보았다.

본당 신부님께서 병자성사를 주시기 위해 오셔서, 밝게 웃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아픈 사람 맞느냐고 농담까지 하신다. 고해성사를 마치고 병자영성체를 하려는데 옆에 있던 바오로 형제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성체를 못 모셨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지금도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다. 주님의 성체를 영했어야 수술하다 죽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실낱같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보호자 오셔서 병실로 모시고 가라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천상의 목소리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할 일이 또 있을까?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는다. 또

신부님을 비롯하여 수녀님,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그 은혜를 두고 두고 잊지 못한다.

췌장은 수술하면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오로지 영양제에만 의존하여 치료하는데, 벨라도 회장님과 도미틸다 수녀님께서 주신 루르드 기적수로 몰래 목을 축이며 40여 일을 버텼었다. 병원 생활 53일째 되는 8월 13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앞두고 퇴원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최양업 신부님 사제관 초가집 지붕을 이엉을 엮어 개량하는 작업 봉사를 하러 갔다. 무거운 용마름을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면 다른 형제들이 힘든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퇴원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제가 그런 일을 하니 걱정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힘든 일을 해서 그런지 속으로 껌맨 실밥이 터져서 배에 힘을 주면 불룩 튀어나와 탈장되었다고 하여 또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퇴원했다.

나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선교활동을 한다. 냉담신자가 내 택시를 타면 신앙체험 이야기를 해주며 성당에 다시 꼭 나가라고 권면한다. 성당에 관심이 있는 손님이 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곧바로 관할 성당 사무장이나 수녀님께 전달해준다.

고통의 은총 계단을 딛고 일어서니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워져 있음을 깨닫는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과 자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덤으로 허락하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얼굴 더럽히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과 자비 덕분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구장 동정

■ 양업고등학교 전진

일시 _ 10월 2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_ 양업고등학교

■ 제106차 감곡 성체현양대회

일시 _ 10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_ 감곡매괴성모순례지 성당

■ 교구장 사목방문

일시 _ 10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_ 감곡매괴성모순례지 성당

교구청

청년성서모임 제38차 탈출기 연수

일시 _ 10.3.목-6.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

중학생을 위한 생명책임성교육(무료)

‘사랑은 생명과 책임이다’

일시 _ 10.6.주일, 14:00-16:00(중학생)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강사 _ 이광호 베네딕토



(사랑과 책임연구소장/생명교육전문가)

접수 _ 10.2까지 선착순 70명
(QR코드로 구글폼입력)
문의 _ 220-1701 청소년사목국

카나 혼인강좌

일시 _ 10.13.주일, 09:00-18:00
장소 _ 교구청
회비 _ 5만원
마감 _ 10.8.화까지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수강자 본인 사전접수 필수

제30기 어머니학교

일시 _ 10.19.토, 08:30-20.주일, 16:30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대상 _ 65세 미만 어머니 선착순 30명
회비 _ 12만원
마감 _ 10.8.화까지
문의 _ 210-1733 가정사목국

제35차 비다누에바 피정

일시 _ 11.8.금, 18:00-10.주일, 15:00
장소 _ 교구 연수원
대상 _ 만 20세 이상 청년
회비 _ 12만원 ※10.6.주일까지 마감
접수 _ cafe.daum.net/nueva
문의 _ 220-1703 청소년사목국

미사·피정

교정사목후원회 및 봉사자 미사

※10월은 없습니다.

봉암성지 철야기도회(밤기도)

일시 _ 10.4.금, 19:00-5.토, 00:00
장소 _ 맹동 성당
문의 _ 883-0161, 010-5215-8607

감사와 청원의 10주간 철야작정기도

일시 _ 10.4-12.20.매주 금, 21:00-13:00
(10.25.금/11.29.금 제외)
장소 _ 초정 성령회관 ※미사, 성시간 있음
내용 _ 묵주기도, 기도, 강의, 안수, 찬양
문의 _ 010-5482-6744 회장

청주 생명수호미사

일시 _ 10.21.월, 19:30(19:00부터 묵주기도)
장소 _ 사천동 성당
대상 _ 생명수호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임신부와 태아 축복예식 있음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_ 10.11-13
성경완독 _ 11.1-9, 12.6-1
문의 _ 010-3340-0201

성모술술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시 _ 10.18-20, 11.8-10
(매월 둘째주 금-주일 2박 3일)
문의 _ 010-3209-3955 문자 접수
※청년치유피정 _ 12.13.금, 18:00-15.주일

교육·모집

레지오 기사교육 2단계 6기

일시 _ 10.5.토, 09:30
장소 _ 사직동 성당

수지애니머그램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뜻깊은 여정”

일시 _ 10.19.토, 10:00-17:00(중식 제공)
장소 _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2층 교육실
대상 _ 자신과 타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 분
(중학생 이상, 가족·그룹 참여가능)
회비 _ 개인 6만원(선착순 8명)
접수 _ 010-4247-2309 ※화-토 상담 가능

가톨릭성서모임 30주년 성서주간 특강

일시 _ 11.30.토, 10:00-16:00(중식제공)
장소 _ 복대동 성당
주제 _ “요나 그리고 나의 이야기!”
강사 _ 교구장 김중강 시몬 주교

충주 오라클 피부과

여드름, 모공, 흉터, 색소, 기미, 잡티
일반피부질환, 건선, 백반증(엑시머)

피부과 전문의 윤정현(투카) | 845-6640~1
충주시 계명대로 28, 6·7층(칠금동)

법무법인 헌암 충주분사무소

민·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
생활법률 무료상담

변 호 사 이두성(비안네) | 853-5700(代)
사무국장 여현구(요아킴) | 충주시 계명대로 117(교현동)

비와이씨 금천점

온 가족 언더웨어는 BYC와 함께!
란제리/잠옷/내의 가을신상 입하

강효숙 안젤라 | 902-1800
(금천동 롯데리아 옆)

보은 대추먹은 흑염소한마리

흑염소 분양, 흑염소 고기, 흑염소 엑기스
보은 황토 생대추, 건대추

김지환 요한 | 010-5833-6541

지극정성 노인주간보호센터

65세이상 치매, 노인성질환 어르신들 낮동안 보호
식사제공, 병원동행, 아침/저녁 차량제공

원장 김나경 안토니아 | 232-9959
(모태안 산부인과 부근) | 등록신청 : 상담지원

제주, 전국167곳 / 일본, 베트남, 마카오성지순례

제주, 전국167곳 36만원 /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도쿄, 오사카 각 3박4일 120만원

마르코 투어 | 010-4239-1929
오완수 바오로

내용 _ 기념미사, 강의, 말씀의 초막제
회비 _ 2만원 ※선착순 300명
문의 _ 010-8939-3587 교구 성서사도직
청년성서모임 그룹공부 그룹원 모집
과정 _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대상 _ 20세 이상 청년 ※마감 _ 10.13.주일
방법 _ cjcy.or.kr에서 신청서양식다운/작성
cj bible4627@gmail.com로 접수
문의 _ 220-1707 청소년사목국

교구 가톨릭연극단 단원 모집(창단예정)
대상 _ 연극을 좋아하는 교구 신자
방법 _ gabekkim@damu.net으로 자기소개서 전송
(성명, 본명, 본당, 성별, 나이포함)
지도신부 _ 안광성 타대오 신부
문의 _ 010-2608-5746

교구 최양업관 주방 직원 모집
자격 _ 60세 미만 신자
문의 _ 010-5463-9812

요양보호사(교대) 및 조리사(주간) 모집
문의 _ 269-2609 은혜의 집(노인요양원)

안내 · 기타

가톨릭청소년센터 고해성사(14:00부터)
일시 _ 9.30.월, 10.14.월(평신도)
10.7.월, 10.21.월(성직자/수도자)

레지아
일시 _ 10.6.주일.14:00
장소 _ 교구청

재속프란치스코회 충주원죄없으신성모형제회
일시 _ 10.6.주일.14:00
장소 _ 지현동 성당

성직자 · 수도자 고해성사

일시 _ 10.7.월.14:00-15:00
장소 _ 최양업관(주성로 321)
주례 _ 함제도 신부(메리놀외방전교회)
시각장애전문교육기관 충주성모학교
과정 _ 유/초/중/고/전공과 ※무상교육
대상 _ 시각장애, 시력사용이 불편한 분

지원 _ 기숙시설, 통학, 보조공학기기 등
문의 _ 852-1374, 843-1374
※장학금, 안마사자격증 취득, 일자리사업참여

9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66th 교구 창립 66주년 (1958-2024) 128th 감곡본당 창립 (1896-2024)

제106차 감곡 성체현양대회

2024년 10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우천시에도 행사진행 중식 무료제공)

감곡매교성모순례지성당
성모광장

제1부 경축미사(교구장 주교님 주례)
제2부 성체행렬 및 산상 성체 강복
제3부 성체 강복(대성당)
제4부 유물전 및 역사사진 전시회
사제단밴드 '블랙셔츠' 공연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 · 출판 · 광고, 성경필사용지 제작 · 판매

숙성새우젓 · 각종 발효액젓 · 신안탈수햇소금
[강경늘봄첫집] 충구역 기름 마린 상담환영/각종 새우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토하젓, 멧게젓, 친환경 우렁
대표 김형근 루카 | 신안탈수햇소금 20kg
010-7722-7711 택배비 포함 4만 8천원

현 대 요 양 원
넓고 쾌적한 요양원 / 사창동 현대코아 7층
(넓은 거실, 생활실, 편한 주차공간 등)
김영준 요아킴 | **010-5375-4263**
신희숙 마리아 김정태 바오로 | **263-3330**

2025 마샘동행 성지순례
2월 8일-12일, 베트남 성모발현지, 150만원
3월 6일-9일, 홍콩/마카오, 150만원
박경동 마리오 | **010-9427-1119**
홍덕구 무심서로 705

맘스토리 산후도우미 센터
정부지원 바우처 등록기관
산모 · 신생아 돌봄, 산후관리사 상시 모집
대표 지순의 아네스 | **010-9235-7786**

민 안과 의원
라식 · 라섹수술, 20년, 김원장라섹
백내장, 쌍꺼풀, 특화수술 · 각종특수검사
원장 김병석(베드로) | **222-8080**
원장 김소연(테레사) | 지하상가 중간 신호등 북쪽

백합훈수방, 백합한복대여
40년 전통 한복 디자이너 대상
24년 선물 증정 감사 이벤트
김정철 안드레아 | **222-9922**
김은정 에피파나 | 중앙공원 맞은편 한복거리